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	이름	황수인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San Marcos (California)
파견대학	California State University	파견기간	12년8월23일- 13년6월30일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편의상 문장 끝에 '~요' 라고 쓴 거 이해 부탁드립니다!^^)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캘리포니아 남부에 위치한 San Marcos라는 작은 도시에 있는 주립 대학교예요. LA까지는 차로 1시간 40분 정도, San Diego까지는 40분 정도 소요돼요. 규모는 우리 순천향대학교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건물들의 통일성이 없다는 것이 순천향과 많이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학교의 규모가 큰 편은 아니지만 건물 안의 시설들은 잘 되어있고 깨끗한 편이에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한적한 것 같으면서도 많은 학생들을 볼 수 있어 학교라는 느낌이 나요. ☺</p>
2012-2학기 수업	<p>1. Personal Health & Wellness (HSCI 200) Laura</p> <p>Lecture 형식의 체육수업이에요. 교수님께서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좋았어요. 수업 내용들도 건강에 관한 것들(스트레스, 식습관, 술, 운동, 사람관계 등등) 이라서 집 떠나 사는 교환학생으로서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숙제의 양이 적진 않은데 미리미리 매일 조금씩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숙제 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서 거부감도 없었어요. 그리고 세 번 정도는 야외에서 수업을 했는데 교수님이 재미있게 다른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도록 유도해주세요. 시험은 객관식이고 저는 파워포인트로 공부했어요.</p> <p>2. English Grammar/Syntax (LING 100) Juliet</p> <p>이 수업은 내용이 아주 흥미롭고 다소 쉬운 편이었어요. 이제껏 살면서 배웠던 영어 문법을 다른 각도에서 다룬다고 보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숙제가 있는데 양도 많지 않고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원래 영어문법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이 수업이 가장 좋았어요. 교수님께서 매 수업마다 프린트 물을 한 장씩 나눠주시는데 그룹으로 나눠서 토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시험은 미리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하는지 잘 알려 주셔서 평소에 공부 했다면 무리 없을 거예요. 추천해요!</p>

2013-1학기 수업	<p>3. Drama (LTWR 333) <i>Oliver</i></p> <p>교수님의 목소리가 엄청 작아서 유일하게 마이크를 이용하세요. 영문학 수업이고 햄릿 등등 유명한 작품들을 다루는데 숙제는 평소엔 없다고 보면 돼요. 중간에 두 번 정도 온라인퀴즈를 풀었고 학기 말에는 배웠던 작품들 중 관심 있는 작품 하나 골라서 리포트 형식으로 10장 정도 냈어요. 교수님이 영문학에 자부심이 강하셔서 영문학에 관심이 많다면 유익한 수업이 될 것 같아요.</p> <p>4. Beginning Guitar (MUSC 140) <i>Eduardo</i></p> <p>기타를 직접 사야 한다는 게 걸리지만 아는 사람에게 빌리거나 가까이에서 Guitar Center 라는 기타가게가 있으니 거기에서 싸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완전 기초부터 알려주시는데 악보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 지도 가르쳐 주신다는 게 저한테는 함정이었어요. 기타 코드만 배우고 싶었거든요.☺ 중간고사 없고 기말에는 앞에 나와서 기타 치는 실기시험이 있어요. 그 외에는 학기 말까지 음악콘서트 총 10개 가서 보고서 써오는 게 과제인데 각각 A4용지 반정도 써도 충분해요. 평소에 써야 막판에 멘붕이 오지 않아요.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니까 저렴하거나 무료인 콘서트를 직접 찾아가는 게 좋을 거예요. 학교에 있는 Art Building 안에서 열어주는 콘서트만 가도 5개 이상을 쓰는 데 문제 없어요. ☺</p>
	<p>1. Intro to Dance (DNCE 101) <i>Anya</i></p> <p>춤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요. 실기와 필기를 병행하는데 가끔씩 수업에 관련된 비디오도 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온라인에 올라오는 특정한 춤에 관한 글을 읽고 짧게 코멘트 형식으로 쓰는 건데 할만해요. 조별로 춤을 창작하는 것이 기말고사예요. 다른 학생들은 교수님이 너무 특이 하시다고 했는데 전 그 점이 좋았고 추천하고 싶어요. ☺</p>
	<p>2. Intro to Linguistics (LING 300) <i>Juliet</i></p> <p>언어학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너무 깊이 파고들지 않아서 좋았어요. 스타일은 2학기 수강했던 English Grammar/Syntax랑 많이 비슷해요. 추천합니다!</p> <p>3. Intro Phonetics / Phonology (LING 391) <i>Nicoleta</i></p> <p>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잘 가르쳐주셔서 좋았어요. 초반에는 영어음성학 위주, 그 이후엔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도 같이 다루며 음운론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게 주예요.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이 수업에 잘 못 들어 갔던 게 많이 아쉬웠어요. 과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있는데 할만 해요. 숙제를 잘 해가려면 음성학을 잘</p>

프로그램 운영	<p>아는 친구를 사귀는 게 좋을 거예요. Intro to Linguistics랑 비교해서 많이 파고드는 편이기 때문에 음성학에 특별히 관심이 없으면 추천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내용이 흥미로워서 관심이 있으면 추천해요! ☺</p> <p>4. Literary Commentary (LTWR 300A) <i>Oliver</i></p> <p>가장 어려웠던 수업 중 하나예요. 매 주 다른 문학작품을 분석하는 건데 2학기 수업에 들었던 Drama 수업과 패턴이 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같은 교수님이었거든요. 비추천!</p> <p>5. Vocal Ensemble (MUSC 394) <i>Lisa</i></p> <p>교수님이 사랑으로 가득 찬 분이세요. 합창단을 하는 수업인데 콘서트도 2번이나 했었어요. 수업시간에 같은 노래를 반복해서 지루할 때도 있었지만 '언제 또 이런 걸 해보겠어.' 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막상 수업 마지막 날(두 번째 콘서트 한 날)이 되니 끝이라는 게 아쉬웠어요. 교수님이 워낙 좋으신 분이라 벌써 많이 그리워요.</p>
	<p>(우선 교환학생 담당자의 이름은 Danielle McMartin. 정말 살갑게 잘 대해 주시고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십니다.)</p> <p>맨 처음 참여했던 교환학생 오리엔테이션은 학기가 시작되기 몇 일 전에 했어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의 모임이고 서로 배울 점이 많을 테니 마음이 잘 맞는다면 친하게 지내시길☺ 또한 국제교류본부 같은 곳에서 한 달에 한번씩 순천향대학교처럼 국제학생들을 위한 coffee hour 가 있어요.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p> <p>학교 안에서 국제학생들을 위한 영작 세미나나 워크샵 등등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어요. 그 외에는 모든 학생들에게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해주기 위한 워크샵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공부방법, 시간관리, 직업결정 등등) 자기가 찾아서 하지 않으면 그냥 놓치게 되는 거니까 학교게시판 같은 곳들도 그냥 스쳐 지나치지 않길. 또한 어떤 큰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특별한 활동을 할 땐 참여할 수 있으니 항상 문을 두드려 보세요.</p> <p>특히 학교 기숙사 UVA (University Village Apartment) 에서 살게 되면 여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요. (친목을 위한 활동, 유용한 정보공유, 음식 나눠먹기, 앞에 나와 노래 부르기 등등) 하루하루가 새로워요!</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저는 원래 여름을 완전 싫어하는데 캘리포니아의 여름은 좋아요. 햇빛 쨍쨍 더운 날에도 습하지가 않아서 땀이 거의 나질 않거든요. 아무튼 여름에는 따뜻하고 가을 & 겨울은 선선한데 일교차가 심해서 낮과 밤의 옷이 달라지는 날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가끔씩 추운 날이 있어도 제가 워낙 추위를 잘 안타서 그런지 막 춥다는 느낌은 단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래도 방학 중에는 다른 곳으로 여행을 다닐지도 모르니까 두꺼운 점퍼 두어 개는 챙겨오면 좋을 것 같아요!</p>
안전	<p>언뜻 들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안전한 학교 중 하나라고 해요. 맞는 말 같아요. 기숙사에 살면서 한 번 털리긴 했었는데 범인은 바로 잡혔고 경찰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어요. 룸메이트들 중 한 명이 창문을 열어놔서 생긴 일이었어요. (어디에서 머물던지 문단속은 진짜 철저히 잘해야 돼요.) 긴급상황을 대비해 누를 수 있는 파란 버튼 달린 기동들이 캠퍼스 안 곳곳에 있고 경찰들도 밤에 잘 돌아다녀서 안전함을 느낄 수 있어요.</p>
숙소	<p>학교기숙사(<input type="radio"/>)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 외부 숙소(<input type="checkbox"/>) 기타(<input type="checkbox"/>)</p> <p>University Village Apartment(UVA) 란 The Quad 라는 기숙사가 있는데 작은 모르지만 교환학생들은 UVA만 허락해 주는 것 같아요. 시설은 아주 잘 되어있는 편이에요. 사실 Dorm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Apartment라고 불러요. 부엌이랑 거실이 딸려 있기 때문에 잠만 잘 수 있는 Dorm 이라는 개념이 다르다고 해요. 저는 비싸지만 학교와의 거리, 제공해주는 다양한 활동들, 친구 사귀는 것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홈스테이 보다는 UVA를 권하고 싶어요. 외부숙소로 다른 아는 사람들이랑 더 싸게 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UVA 추천. ☺</p>
식사	<p>학교 Meal Plan (<input type="checkbox"/>) 학교식당 개별이용 (<input type="checkbox"/>)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 외부식당 (<input type="radio"/>) 직접 요리 (<input type="radio"/>) 기타 (<input type="checkbox"/>)</p> <p>학교 기숙사(UVA)에 부엌이 있기 때문에 직접 요리해 먹을 수 있어요. 첫 학기에는 시리얼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그 다음 학기에는 밥도 하고 많이 해먹었어요. 달고 짠 음식의 유혹도 자주 있을 테지만 꼭 이겨내세요. 나중에 후회해요. ☺</p>

교통	학교는 기숙사에 사니까 걸어 다녔어요. San Diego 갈 때는 Coaster, LA 갈 때는 Amtrak 등등 몇 개의 대중교통이 있는데 웬만하면 차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LA에 데려다 주는 것들은 비싸요. 캘리포니아 자체가 교통이 좋은 편은 아닌 듯 해요!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모두 다 합치면 약 22.000.000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왕복 2.200불 정도	편도 추천! ☺
Fees	없음	
보험료	한 학기에 약 400-500불	자매대학에서 원하는 보험(학기 별로 내는 것이 보통)
숙소	한 달에 practically 700불 (서비스 비 포함)	원래는 신용 때문에 일년 치 한꺼번에 내야 하는데 한 교환학생이 따졌더니 반년씩 나눠서 내도록 허락해줌.
식비	한 달에 약 100-150불	한국이랑 비슷함 (소고기랑 과일 등등 더 싼 경우도 많음)
교통비	일년 약 250-300불	(항공료 미포함)
책값	거의 200불	amazon.com이나 campusbookrentals.com 에서 싸게 구입하길!
기타1	겨울방학 동안의 여행 약 2.000불	(항공료 포함)
기타2	여름방학 동안의 여행 약 4.000불	(항공료 포함)
합계	17.150불	

5. 출국 전 준비사항

저는 솔직히 정보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갔어요. 그렇지만 "Experience is the best teacher." 라는 말도 있듯이 그냥 겁 없이 다 부딪혀 보세요. 그래도 불안하면 교환학생에 관한 좋은 책들 꼭 읽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많이 걱정하지 마세요. 막상 가면 다 사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어있어요. ☺

6. 본인 소감 및 평가

저는 정말 처음 교환학생이 되고 싶었던 이유가 영어를 배우기 위함이 아니라 한국을 벗어나 보고 싶은 욕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토플 점수대 상관 없이 무조건 붙자는 식으로 Cal State San Marcos에 지원을 했었고요. 처음 합격사실을 알았을 때 그때까지 고생했던 것들이 생각나면서 너무나 기뻐서 눈물까지 날 정도였어요.

한국을 뜨기 전까지는 같이 교환학생 가는 형권오빠랑 정화랑 엄청 자주 만나서 얘기도 많이 하고 비자신청, 비행기표 예약, 기숙사신청, 수강신청 등등 다 같이 서로 도우면서 했었어요. 그게 었그제 같은데 정말 시간은 엄청나게 빠른 것 같아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땐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같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지만 한국과는 다른 것이 눈에 보이거나 느껴질 때에는 흥미롭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될 때도 있었죠. 근데 그런 거 다 말하면 직접 갔을 때 재미 없을 테니 말 안 할게요. ☺

미국에 온지 한 2-3개월이 되었을 때 전혀 생각지도 못한 Homesick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왜 내가 나 스스로를 고생시킬까? 이었어요. 그때부터 일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저의 흠썸은 거의 바로 없어졌어요. 주님이 날 선택 하셔서 미국에 보내주셨는데 감사해야지요. 이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교환학생이라는 큰 기회를 주신 것... 그때부터 모든 한 순간 순간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여행을 겨울방학, 여름방학, 심지어 학기 중에도 여행을 다녔었어요. 태어나서 여행을 제대로 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랬는지 욕심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평생 절대 잊지 못할 많은 좋은 추억을 만들었고 많이 배우기도 했어요. 특히 입국하기 전 3주 동안은 저의 어머니랑 여행 했는데 엄~청 행복했어요. 어차피 방학 동안에는 할 거 없으니까 꼭 여행하세요!

마지막으로 교환학생을 공부만 하는 교환학생으로만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누가 되든 간에 인생에 있어 한 획을 긋는 순간이거든요. 1년 동안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고 최대한 많은 좋은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Make the most of your time!

전 사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요. 파이팅!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내가 살았던 기숙사 UVA!
(University Village Apartment)



왼쪽에 있는 여성분이 CSUSM 교환학생
담당자 Danielle McMartin!



맨 처음 했던 교환학생 오리엔테이션!



자주 갔었던 Oceanside에 있는 바다!
학교에서 차로 20분 걸림!



일주일에 한 번씩 Oceanside에서
열리는 Sunset Market!



날 가장 좋아해 주셨던 Laura 교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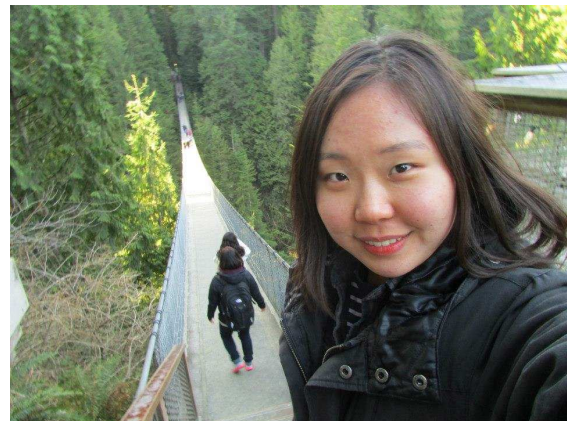
Thanksgiving Day 옆방 룸메이트가
자기 집에 초대해줌! <3



가운데에 있는 Yuki라는 일본친구에게
일주일에 한번씩 영어발음 지도! ㅋㅋ



Monse라는 잊지 못할 친구에게
스페인어도 배움!



미국으로 이민 온 친구랑 캐나다에 있는
Capilano Suspension Bridge 에서!



English Grammar/Syntax 수업에서 알게 된
친구 Alison! 그녀의 고향 플로리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 중 하나!



2학기에 갑자기 불어난
한인학생들이랑! :D



친구들과 한국음식점 Manna에서
다같이!



정화랑 함께 기타연습 인증샷! <3



UVA에서 했던 오픈 마이크 Night!



절대 잊지 못할 멕시코여행!



봄방학 때 UVA를 통해 갔던 Portland!
열흘 동안 집 짓기 봉사활동(Habitat for
Humanity!)도 하고 관광도 하고!
싼 가격에 완전 좋은 경험!



International Fair 에서 한복도 입고
한국노래 두 곡 뽑음! :D



가끔씩 애들 한국음식도 만들어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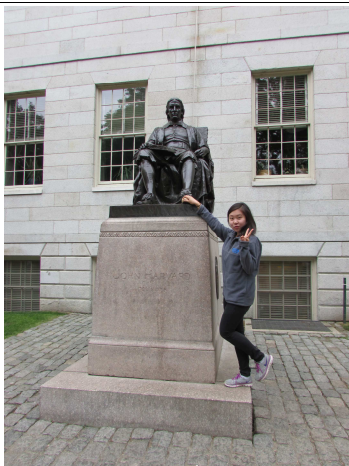
금요일 저녁마다 갔었던 Christian 집!
여러 나라의 음식도 먹고 성경공부도
하고 게임도하고!



마지막으로 했던 Coffee Hour 겸
굳바이 파티! :(



정화랑 완전 즐거웠던 단들이
시카고 여행! <3



처음으로 혼자서 했던 여행 in 보스턴!



예고에 없던 어무이랑 3주간의 여행! <3
너무 행복해서 눈물까지 났다는☺